

# 2012년 9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2. 9.25(화)

## 위원 주요 발언 내용

### ▲ 뉴스Y 자체 비판 기능 가져야

- 언론의 사명 중 하나가 여론 주도 및 비판 기능. 비판 기능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만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해, 재고해야(이상목, 김정연 위원)
- 공정보도라고 하더라도 기계적인 시간 배분의 공정성이 아닌 언론 매체가 갖는 철학이나 가치관을 밝히는 것이 낫다고 생각(이석구 위원)

### ▲ 밝은 뉴스도 내보내야

- 행복한 뉴스, 즐거운 뉴스로 뉴스를 시작하거나 끝맺는 방법 고민해야.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방송 필요(홍승용, 박영상, 임상혁 위원)

### ▲ 보도영상 등 화면 구성 개선해야

- 특파원 보도시 뉴스 하단에 특파원 이름, 지역명 등의 정보별로 색깔이 다 달라서 너무 복잡해(차경애 위원)
- 글자체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, 눈에 잘 들어오는 뉴스Y 자체 글자체를 개발했으면(홍승용 위원)
- 글로벌Y에서 술한 '화제'가 아닌 '화재'로 자막 방송돼. 오타에 주의 필요(차경애 위원)
- 대담 진행시 화면이 혼란스럽고, 배경이 출연자보다도 커서 집중도가 떨어짐. 화면 재구성 필요(한박무 위원)

### ▲ 인터뷰 및 대담 보도 방식 개선해야

- 대담자의 표현에 사전에 주의를 주거나 양해를 구해야(김정연 위원)
- 비즈니스 투데이 인터뷰에서 마트와 재래시장 상권 관련 보도 등에서 재래시장 입장에서만 인터뷰해 한쪽에 치우친 느낌(임상혁 위원)
- 볼라벤, 산바 태풍 보도에서 피해 상황 집중 보도, 물가 상승, 보상 문제 등 보도 포맷이 똑같았음. 획일적인 보도 방식 개선해야(임상혁 위원)
- 성폭행 사건 조명 보도에서 나영이 아버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출연자 섭외와 질문 내용이 모두 적절치 못했음(한박무 위원)
- 인터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 중요. 작가 역할 중요해(홍승용 위원)
- 손석희 등과 같은 스타급 대담자를 끌어들여야(홍승용 위원)

#### ▲ 어젠다 선정 및 보도 순서 신중해야

- 미국 등 해외 각국의 대선 관련 이슈들을 우리랑 비교해본다든지 교포들의 대한 현지 반응에 대해서도 보도했으면(이상목 위원)
- 경제 이슈 중에서 에너지 자원 등 이슈를 끌어내서 우리 경제나 대선이랑 연결시켜서 뉴스Y의 경쟁력을 살린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(이상목 위원)
- 패럴림픽 개최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더 가졌어야. 메달 획득 보도에만 치중해 아쉬워(이석구 위원)
- 소외 계층 관련 뉴스 비중이 많이 떨어져. 메인 시간이 아니어도 소외 계층을 특화해서 보도했으면.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(이석구 위원)
- 파주 장남교 붕괴 관련 뉴스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3번째 순서로 보도돼. 제일 먼저 보도되는 게 맞을 것(차경애 위원)
- 장성택 단장이 중국 방문한 후에 발생한 내용이 북한 뉴스 등에서 보도되지 않았음. 후속 보도 필요(홍승용 위원)
- 센카쿠, 독도 등 해안 분쟁 관련한 뉴스가 깊이 다뤄야(홍승용 위원)
- 특히 전쟁에서 아이폰5 등장과 함께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비중 있는 보도 필요(홍승용 위원)
-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지도자를 뽑고 있는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도는 전혀 없음. 심층 분석 필요(홍승용 위원)
- 대한민국 신용도 상승은 중요한 이슈로 심층 분석 필요(홍승용 위원)
- 왜 강력범죄가 늘어나는지 등에 대한 심층 보도 필요(최종준 위원)
-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체육대회가 대구에서 개최. 국내 최고 스타선수들이 모두 참가하는 축제인 만큼 비중있게 보도해야(최종준 위원)

#### ▲ 대선 보도 신중하게 해야

-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는 표현은 통계학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표현(김경모 위원)
- 부산경남 지역의 민심 보도 기사는 비록 다른 보도기관의 여론 조사 보도결과를 인용했지만 오차한계 등 주요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음(김경모 위원)
- 선관위가 규정하는 주요 방법론 정보는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여전히 상당수 주요 항목이 빠져 있음(김경모 위원)
- 안철수에 대한 관심 집중이 박근혜와 안철수 구도로 가는 것처럼 보여. 다른 후보는 묻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보도는 피해야(차경애 위원)
- 선 보도와 관련해 조사, 인터뷰, 기간 등에 대한 로드맵 있어야(홍승용 위원)

#### ▲ 보도 방식 등 매끄럽게 개선해야

- 나주 어린이 성폭행 관련 전남대 의사 인터뷰를 통일교 총재 사망 보도 중간에 라이브로 방영. 리포트 끊고 나오는 것은 자제해야(한박무 위원)
- 라이브를 자주 물리면 라이브의 가치가 떨어지기에 꼭 라이브로 물려야 하는지

- 고민해야. 명확한 기준으로 선별해서 내보냈으면(한박무 위원)
- 오후 6시 한빛광장 날씨 관련 인터뷰 너무 작위적(박영상 위원장)
- 2일날 박근혜 회동에서 현장 보도는 좋았지만 자료화면이 너무 지난 것. 오늘 영상이 아니면 다 '자료화면'으로 표기해야(박영상 위원장)
- 나주 어린이 사건, 문선명 아들 북한 방문 등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자세히 분석 보도 해. 길게 보도할 필요가 있나 고민해야(박영상 위원장)
- 기사를 보면 모두 역삼각형 기사로 포맷이 같아 아쉬움(박영상 위원장)
- 강력 범죄의 보도에서 자극적인 영상들이 모자이크처리에도 불구하고, 연이어 나와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음(최종준 위원)
- 날씨 정보에 나오는 배경음악의 소리가 아나운서 목소리에 비해 커서 내용 전달에 방해가 됨. 빠른 템포 음악도 산만하게 느껴짐(최종준 위원)
- 국민의 관심이 높고 영향성이 큰 건강, 경제, 교육, 복지 뉴스는 관련 정보를 요약한 그래프, 도표를 보여줘 주목도와 공감도를 높여야(김경모 위원)

#### ▲ 긍정적인 평가

- 개편 후 외향적으로 좋아져. 이제 콘텐츠를 알차게 채워야(박영상 위원장)
- 일반 방송사는 인터뷰시 화면을 전체 풀로 잡지만, 뉴스Y는 인터뷰 화면을 작게 구성하고 관련 영상은 크게 볼 수 있어서 좋아(임상혁 위원)
- '출근길 인터뷰'는 솔직한 얘기 들을 수 있어 좋아(차경애 위원). 스튜디오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돼 신선(최종준 위원)
- 국제뉴스 미국 대선 관련 뉴스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(차경애 위원)
- 9월 1일 휴먼다큐 사람들은 여성단체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앞으로도 더 관심 갖고 제작했으면(차경애 위원)
- 대선과 관련한 정치 분석 프로그램이나 코너 등이 풍부하게 마련됨. 또한 코너별로 각기 콘셉트를 달리해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높임(최종준 위원)
- '대선 상황실' 코너의 신선한 헤드라인, 빠른 템포의 배경음악, 그래픽 구성 등이 매우 좋아. 제작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돋보여(최종준 위원). 진행자 노효동 방송 능력이 출중하고 프로그램도 재밌어(한박무 위원)
- '고성국의 담담타타'는 주요 영상만을 골라낸 편집, 재미있는 배경음악, 고성국 씨의 촌철발언이 신선하고 시청자의 동감을 이끌어 내(최종준 위원)
- 인터뷰, 아나운서 등 드레스 코드가 많이 좋아졌음(홍승용 위원)
- 대기업 영화관 장악 실태를 비판 한 뉴스 기사는 도표로 제시하며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대비시켜 좋은 보도 사례라고 생각(김경모 위원)

#### ▲ 기타

- 홈페이지 상에서 특정 프로그램 시청이 불편함(최종준 위원)
-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안내전화번호 부재(최종준 위원)

- 싸이, 피에타 등 이슈가 많기에 문화 영역을 넓혀 나아(차경애 위원)
- 공공기관 등의 모니터에 뉴스Y 방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(홍승용 위원)
-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인 만큼 뉴스Y 홈페이지에 대선 관련 종합 정보 사이트를 설치하길 희망(김경모 위원)
- 뉴스Y가 주목하는 대선 관련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설명하면서 선거 의제를 선점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것도 좋은 보도 전략(김경모 위원)
- 균형 보도 관련해선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 여러 은행 PB팀장들 인터뷰 보여주며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좋았음(임상혁 위원)